

한라시론



강종우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2016년 말 에티오피아에서 기본 좋은 소식이 건네졌다. 제주 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것. 벌써 2년을 훌쩍 넘긴 셈이다. 그만큼 어느새 잊고 살았나 싶어 되레 속상하기까지 하다.

해녀의 마음

답답히 "내가 그걸 쓰면 나머지 99명은 어떻게 살라고?" 해녀삼촌처럼 이런 생각 가진 사람, 혹시 볼 수나 있을까? 정말 눈을 씻고 찾아보기 힘들다. 남보다 조금이라도 많이 갖으려고 아등바등하는 게 요즘 세태 아니던가. 곁에 있는 사람 챙기는 일마저 어리석다 핀잔 주기 일쑤다. "(우리 사회는) 남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너무 없다" '한한산성'의 작가 김훈이 엮고제 단진 쓴 소리다.

가 민회였다. '불턱'은 이런저런 정보와 기술을 공유할 뿐 아니라, 어떤 일을 매듭짓는 의사결정 장소이기도 했다. 만장일치가 원칙이다. 그래서 대상군은 그야말로 이 과정을 이끄는 품성을 갖춘 해녀들의 리더였다. '할망바당'은 말 그대로 노약자 전용 바다다. 이제는 나이 들어 깊은 물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할망들에게 낮은 바다를 양보한다. 이뿐 아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집안 사정 때문에 채취물이 적거나 더 필요한 해녀에게 자신의 물건을 빌려주던 '계석'이란 것도 있다.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해녀들 나름의 사회보장이다.

도 보기 드물다. '오래된 미래!' 해녀들의 공동체문화는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에 실낱같은 희망을 던진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환경재앙, 양극화, 위험사회... 그 해법을 해녀들의 공동체문화에서 찾을 수 없을까? 아니, 해녀의 시선으로 통찰력을 길러야 한다. 해녀의 DNA를 체질적으로 습득한 이 땅 제주사람들이 배워야 한다. 요즘 화두인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경제도 결코 생뚱맞게 빌려온 남 얘기가 아니다. 다소 어렵게 들리는 포용성이란 개념도 마찬가지다. 제주 역사와 문화 속에 아로새겨진,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에 녹아있는 그것이다. 바로 해녀의 마음이다.

편집국 25시

갈등 조정 능력 시험대



오은지 정치부 차장 ejoh@halla.com

제주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제2공항 건설 갈등 문제가 새 국면을 맞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대대책위측과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만남이 조만간 성사될 것이라 기대감 때문이다. 최근 제주도 소통혁신정책관은 반대대책위측과 만나 원 지사와의 만남과 제2공항성상반대대책위측이 이달 초 제안한 제2공항 의혹 해소 및 도민의견수렴을 위한 공개토론회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이와 관련해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공개토론회 개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원 지사와 반대대책위측과의 만남 가능성도 열려있다. 다만 반대대책위가 제안한 프랑스파리공항공단엔

지니어링(ADPi) 초청 ADPi 보고서 검증 제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제2공항 반대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은 즉각 논평을 통해 제주도의 공개토론회 수용 의사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달 중 공개토론회 개최와 ADPi 초청 ADPi 보고서 검증을 거듭 요구했다. 이제 남은 건 실무 협의다. 도민 소통을 강조해 온 원 지사의 의지가 반영된다면 순탄하게 진행될 일이지만, 도민 공론화와 ADPi 보고서 검증에 대한 입장차는 변수다. 일각에서는 만남에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입장차가 정리되지 않으면 불발되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원 지사는 본지와 민선7기 1주년 특별 인터뷰에서 제2공항과 관련한 갈등에 대해 "잔반을 떠나 도민과 소통하며 낮은 자세로 도민이익과 제주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정책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과 소통하며, 도민 통합의 기반 위에 도민행복과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도정의 갈등 조정 능력이 다시금 시험대에 올랐다.

뉴스-in

제주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답보'

내년부터 강력조치 추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이 전국 평균 85.5%로 큰 폭으로 상승하며 순항하는 반면 제주지역의 진행률은 전국 최하위권인 71.3%에 정체되며 대책 마련이 시급.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도내 축사 적법화 추진 결과, 관리능가 100곳 중 인허가를 받거나 폐업 등의 적법화한 곳은 25곳에 불과. 이와 관련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적법화 조치를 하지 않는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축사 철거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선다는 입장. 백규탁기자

음식물 폐자원을 활용한 퇴비만들기 교육에 이어 하반기엔 대상을 어린이, 성인으로 확대하고 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도 조사. 시 관계자는 "뚜렷한 상차림 문화 등으로 작년 음식물쓰레기가 생활화화 위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 문미숙기자

사설

월동채소 생산·유통혁신 근본대책 기대

제주도가 월동채소 생산·유통혁신 기본계획안을 내놨습니다. 공급 과잉으로 유통처리난을 겪어온 도내 월동채소의 시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가의 참여가 전제돼야 하는 유통명령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월동채소 생산·유통혁신 TF팀을 통해 월동채소 생산·유통혁신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제주형·정부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개선을 비롯 ▷월동채소 사전 면적 조절제 도입 ▷발작물 품목별 조직화 육성 ▷발작물 주산지 지정 및 육성 방안 등 15가지 과제가 제안됐습니다. 문제는 도내 농가들의 공감대 확보는 물론 정부 설득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잖다는 점입니다. 월동채소류 유통명령제의 경우 기존 월동무에 한정된 품목을 양배추와 당근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통명령제는 농산

물 가격의 폭등·폭락을 막기 위해 행정이 유통에 개입, 출하조절이나 최저가·최고가를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품목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산지유통인·도매업자·소매업자 등 유통협약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의 협의도 필수여서 추진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다시피 농사짓는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농사가 잘 돼도 걱정, 안돼도 걱정이니 말입니다. 특히 농사가 잘 되더라도 마냥 좋아할 수 없습니다. 풍년이면 수확의 기쁨을 누리려 할 농민들이 오히려 가격하락을 걱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하면 '풍년의 역설'이 되풀이되기 일입니다. 대책이라고 해봐야 애써 키운 농작물을 갈아엎는 산지폐기가 고작입니다. 따라서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폭락하는 '농산물 파동'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다크투어리즘 법·제도적 뒷받침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들은 웅산 전쟁기념관·서대문형무소를 즐겨 찾는다. 경복궁 등과 함께 반드시 찾아야 할 필수 코스라고 여긴다. 다크투어리즘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비극적 역사의 현장이나 재난·재해가 일어났던 곳을 돌아보기 위해 떠나는 이들이 늘면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나 체르노빌, 그라운드 제로 등은 대표적 공간입니다. 이들 지역을 찾는 여행객은 한 해 수백 만명을 웃돕니다. 제주에도 비극적 역사의 현장도 도처에 존재합니다. 항몽유적지에 서부터 일제 군사기지·침탈 현장, 4·3 유적, 6·25 유적 등이 산재해 있습니다. 하지만 다크투어리즘에 활용되는 유적은 극히 드뭅니다. 4·3평화공원을 알뜨르비행장·셋알오름 등이 고작입니다. 며칠 전 '역사자원의 보존과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정근식 서울대

교수는 "제주 다크투어리즘의 지속 발전을 위해 역사적 현장을 잘 보존하고, 문화예술적 자원의 발굴과 체계화, 지원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제주의 경우 역사적 자원은 풍부하지만 이를 활용해 문화상품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이 충분치 않다"며 "평화와 연관된 문화제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시의적절한 조언이라고 여겨집니다. 관광객수가 등락을 거듭하는 요즘 다크투어리즘은 또다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보편적 인류애를 일깨워주는 동시에 역사적 사실을 바로 알리고, 교훈을 심어주는 차원에서 더욱 필요합니다. 다크투어리즘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더불어 역사적 자원을 문화상품으로 되살리는 노력도 시작돼야 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고 박재홍(환상제주 투어버스) 아버지 도훈장 아산박공 지택 (향년 85세)께서 서기 2019년 7월 17일 11시 36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7월 19일(금)
▶발인일시: 2019년 7월 20일(토) 오전 7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분향실
▶장 지: 아흔아홉골 선영
아들 박재홍, 박재관, 박재민, 박재영, 박병준, 박지연
매니저 정미진, 서희경, 부영희, 전육석, 허종민, 전종우, 허원준
의사진 박지연, 전은주
지혜, 지현, 지애, 지윤
* 연락처: 박재홍 010-9458-7770, 박재관 010-9487-0200, 박지연 010-6682-2967, 부민장례식장 742-5000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evworld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1544-8236

백도라지 분말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계분 판매합니다. (배달 가능)
무항생제인증, HACCP인증 받은 자연건조한 계분(산란계)판매
전 화 : 064-796-6947, 핸드폰 : 010-3699-3344
신일농장, 제주팜 (주소: 제주도 한림읍 명사로106-7)

고개속인 남성들을 위하여!
발기부전치료에 쓰이는
원터치자동약물주입기의 장점
▶ 사용 및 휴대가 매우 간편하고 원터치로 약물이 주입되어 통증 및 거부감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 기기에 쓰이는 치료약물은 고혈압, 당뇨, 노화에 의한 발기부전 및 암, 수술 후 발생한 발기부전에도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 약물주입시 대부분의 남성들이 발기가 이루어져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원터치 자동주입기에 넣어 사용하는 발기부전치료약물은 부적절하게 사용시 발기가오래 지속되는 부작용이 있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은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발기부전클리닉 ▶ 조루약물주입법 ▶ 전립선클리닉 ▶ 남성화성기질환 ▶ 요로결석
* 남성고민 상담 *
연세포르테비뇨기과월
☎ 064) 724-7575
터미널 맞은편 제주은행 2F

사무실 임대
위치 한라일보사 1층 (제주시 서사로 154)
전용면적 175㎡(분할가능)
용도 사무실용
주차장 완비
문의 064-750-2530